

순천 창작예술촌 예술인 잇단 입주...문화의 거리 프리마켓·버스킹 인기

원도심 살아난다, 사람이 모여든다



순천시상권활성화 재단과 씨내몰변영회가 공동으로 친체한 향동·중앙동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1회 풍물 패션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때 전담의 명동으로 불렸던 순천 향동·중앙동 상권은 온라인 판매 증가와 신도시 개발, 교통망 발달에 따른 소비자의 대도시 유출 등 각종 악재로 상권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014년 3월 향동, 중앙동 일대 6개 권역 17만5389㎡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지하상가 등 전통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원도심인 향동·중앙동 일원 빈집을 활용해 조성 중인 '창작예술촌'에 스타급 예술인을 모셔오는 등 '사람이 모여드는 인프라' 구축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사람이 모여야 도심이 산다=순천시는 원도심인 향동·중앙동 일원에 흉물로 방치된 폐가를 리모델링해 창작 예술촌으로 만들고 있다. 예술인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람 향기가 물씬 풍기는 도심'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시의 다양한 지원 등 노력 덕분에 '창작예술촌'에 순천 출신 유명 예술인의 입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예술인촌을 조성했지만, 이처럼 스타급 예술인이 연이어 둥지를 튼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혜순 한복 명인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자 서양화가인 조강훈 작가 등 2명과 순천시 창작예술촌 입성 상호 업무 협약(MOU)도 체결했다.

지역문화 결합 상권 육성 총력 청년창업 지원 '청순마차' 운영 매출 5%·유입인구 10% 증가



조강훈(가운데) 순천시장은 지난 29일 김혜순(왼쪽) 한복명인, 조강훈(오른쪽) 서양화가와 창작예술촌 입성 상호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로써 창작예술촌 1호인 사진작가 배병우씨에 이어 순천에 연고하고 있는 저명 예술가의 잇따른 입성으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재단=관광객을 모으려면 향동·중앙동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원도심상권활성화재단은 원도심 상권을 지역문화가 결합한 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발족 후 상인대학 개설, 상품·점포 개발, 주민참여시장 운영, 우수점포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순천대표 문화장터인 골목대장은 매일 셋째주 토요일에 프리마켓, 버스킹, 플래시몹으로 운영

되면서 매회 2000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문화의 거리를 찾은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같은 노력으로 문화의 거리는 지난해 대비 5% 이상의 매출증대와 10% 이상의 유입 인구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식당 등 주변 상가 매출 증가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유명업체 입점도 상권은 활성화되지만, 기존 상인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영업을 포기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인과 건물주 및 재단과 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청년층을 끌어들이자=원도심 상권 활성화 재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청년 창업 및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상권활성화 구역 내 순천형 창업모델로 육성하는 청순(청년순천) 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순마차는 계절별, 주야간, 평일, 주말 등으로 구분해 특화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시장 일명 도깨비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 영화관 밀집지역이었던 중앙동에서 원도심 상권을 배경으로 11시간 동안 영화를 제작해 심사, 발표회까지 하는 11시간 영화제도 기획하고 있다. 11시간 영화제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향후 도시재생과 영화의 거리 조성까지 연결한다는 것이다.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경제, 교육, 체험이 결합한 ECO-3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0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신고 포상금도 지급

순천시는 1일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 쓰레기 미수거, 불법투기 단속 기동반 운영, 야간 불법투기 단속, 음식물 배출 방법 홍보, CCTV 설치 등을 시행했으나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투기 과태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4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2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 80대, 민간감시요원 등을 적극 활용해 불법투기를 실시간 감시 적발하기로 했다.

시는 과태료 인상 홍보전단 5만부를 제작해 전 시민에게 배부하고 경로당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형전단을 부착,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시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주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고, 시민 생활에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 등 쓰레기 배출 방법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안전문화진흥협의회 발족...안전한 순천 만들기 앞장

순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표로 안전문화진흥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안전문화진흥협의회'(협의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순천시는 26명의 기관·단체장, 시의원, 전문가, 국·소장 등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시민안전과 가장 밀접한 7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7개 분과는 시민 안전리더, 교통안전, 노인안전,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폭력·범죄 예방, 자살 예방, 재난재해 예방 등이다.

순천시는 분과위원회 위원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 기능은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과 발전 방



순천시 안전문화진흥협의회원들이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안전문화 확산에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안 마련,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 지원,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안전 도시 사업과 종합안전 체험교육 등이다.

협의회 위원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협의회 구성으로 순천시의 안전문화 확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공동체 형성이 협의회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순천시 안전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수강생 2개과정 60명 모집

순천시는 1일 "정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원 관리 인재 양성을 위한 2016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수강생을 3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누구나정원사(교양반), 시민정원사(심화반) 등 2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총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누구나정원사(교양반)는 정원 관련 기초교양 강좌로 개인정원 만들기 실습 등 일반 시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시민정원사(심화반)는 지난해 실시한 정원 관련 교육 수요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정원에 대한 이

해, 정원 디자인, 정원관리 등 실습과 탐방 위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minnie1@korea.kr)로 전송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정원산업과(061-749-487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통해 국가정원 도시민의 역할을 향상시켜 시민 스스로가 꽃과 나무를 가꾸는 선진 정원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순천=박선천기자 psc@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허 단열성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수정 ☎ 061-461-1800 H. 010-3631-0372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하이브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골프, 롯데스카이힐스,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영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의 입차단, 차량이동시간임)
소문의 권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알리버다이브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평일, 성수기, 중성수기 - 연휴기간 제외)
렌트가 90% 할인	별라 15평 동나무원룸 1박 + kb or YF소나타 24시간 78,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완비	300평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룸 완비, 150인 수요가능한 아이브룸 완비, 조·중·석식가능